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은 겨레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받아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4.27선언이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분열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었다.

역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6.15의 기치 밑에 걸친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6.15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뉘어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화해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한 열광으로 들끓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에 진행된 두차례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번 적극 지지 환영하면서 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변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것이다.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날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역사의 새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6.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온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된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이 실현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에서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선언이행에 관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있는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리정표를 따라 활력있게 발전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나갈 것이다.

2. 판문점선언이행에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나갈 것이다.

오랜 세월 분열과 대결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고 화해단합과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날의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자

랑스러운 결실이다. 통일의 화해와 감격으로 들끓던 6.15통일시대의 올해에 들어와 조진반도에 펼쳐진 경이적인 특대사변들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뜻을 같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조진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것이며 북남사이에서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첨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가 우러르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모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판문점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북,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인 형태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나갈것이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조진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는것을 우리

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역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고 적대관계의 종식과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의 지표가 마련됨으로써 평화실현에서 중대한 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조진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것이며 북남사이에서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첨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가 우러르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모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판문점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북,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인 형태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나갈것이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8년 6월 15일

북남로동자의 단결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북남로동자단체 공동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이하는 이 시각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들은 판문점선언이 열어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뜨거운 심장으로 맞이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6월 민족분열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일대 사변이었다.

역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우리 북남로동자들은 6.15의 기치 밑에 걸친한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힘차게 추동하여왔다.

반통일의 역풍속에서도 북남로동자들을 비롯한 온 겨레가 굳건히 지켜오고 실현해온 6.15는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6.15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화해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온 민족을 5.26의 거세한 열광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북남로동자단체들은 두차례의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번 열렬히 지지 환영하면서 새로운 역사,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와 열의로 충만되어왔다.

오늘 우리앞에는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놓여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진 분열과 예속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사적과제가 나서고 있다.

이 땅의 항구적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해 로동자들이 당당히 앞장서나갈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공존과 평영을 위한 가장 선진적과제이다.

73년간 이어진 위기의 반복속에서 외세의 군사적개입과 간섭은 가중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세계최대의 화약고로,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알수 없는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말았다.

이제는 이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 나아가 전쟁위기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평화실현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공존과 평영을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분렬 73년만에 열린 역사적 전환기에 북과 남의 로동자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민족앞에 나선 역사적과제를 해결할것이다.

정전협정폐기, 평화협정실현을 위해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가 앞장서서 나아갈것이다.

오늘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판문점선언의 민족자주원칙으로 계승되었다.

평화와 통일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 어떤 동맹이나 우방도 우리 민족의 이익을 방패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가장 근본적이며 1차적인 과제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북, 남, 해외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공존, 평영, 공리의 목표아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가장 큰 국제적과제이다.

북과 남의 로동자는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는데 앞장서나갈것이다.

통일의 주인은 북, 남, 해외 8천만 민족전체이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 4.27선언에 의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열렸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판문점선언의 중대한 리행이다.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는 판문점선언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견결히 맞서 싸워나가며 선언의 중대한 리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것이다.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 《한국로동조합총련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련맹

2018년 6월 15일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한 장애자의 꿈이 꽃피어나기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꿈은 소중한 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한생을 바치기도 한다. 얼마전 기자는 남포시교려병원 의사 최성혁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꿈에 대한 추억

기자가 만난 최성혁(28살)은 단정한 외모에 지성미가 엮이는 청년이었다. 남포시교려병원 수법치료과 의사인 그는 16살 나던 해부터 두눈을 못 보는 장애인이다. 실명을 두고 번민하던 그가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우리의 사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교려의사가 되었다.

기자와 만난 최성혁은 《정상 사람들도 오르기 힘든 의학과학의 세계를 시력장애자가 터득했다》라고 하면 믿기 힘들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주저한적도 없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기어이 유능한 의사가 되어 나의 꿈을 꽃피워준 고마운 제도로 의술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억의 노를 저어갔다. ...

유능한 교려의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배우 꼭 유능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학교 선생님들앞에서 최성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의학에서 해부학은 유기체의 형태와 크기, 구조와 장기들의 호상위치관계, 이들의 변화변전을 연구하는 형태학의 한 분과이다. 복잡하고 치밀한 인체의 구조를 습득한다는것은 높은 관찰력과 예민한 감각을 요구한다. 그런 해부학 강의시간이면 최성혁은 안라잡고 속상했다. (남들처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감을 들수만 있다면.) 그런 최성혁에게 선생님과 동무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고마운 품속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온데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던 그는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즐겨 화폭에 담곤 하였다.

그런 그에게 덜컥 실명은 인생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괴로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동무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가 그린 소묘작품들을 남포시적으로 진행되는 미술경연에 출품하겠다는것이였다.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면서... 그때 최성혁은 동무들의 진실한 우정에 눈물을 흘렸다.

그후 최성혁은 그와 같은 시력장애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특별히 세워준 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록 실명이 되어 미술가가 되려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손감각으로 도면마든지 가능한 수기치료사가 될 꿈을 안고 보건성산하의 어느 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들은 눈이 되고 손길이 되어주었다.

해부학시간이면 담임선생님은 그의 손을 쥐고 근육들의 위치를 짚어주시며 팔뚝의 배지명세를 설명해주시고 최성혁은 그것을 하나하나 손터득으로 익혀나갔다. 그 나날 뜨거운 인간

애가 심장속에 짝 차있어야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줄수 있다고 하던 스승의 말을 그는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의 높은 경지에 기어올라서려는 그의 탐구열의를 소중히 여겨 나라에서 그를 졸업한 그를 또다시 남포의학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었다.

대학에 입학하는 그에게 교직원, 학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대학에서 그는 수기치료와 침치료, 뜸치료와 같은 교려의학의 전문으로 배우게 되었다. 두눈을 보지 못하는 조건에서 문진으로도 얼마든지 환자치료를 진행할수 있는 교려치료방법은 그에게 적극 추천되었다.

이 나날 다른 학생들보다 몇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공부에 열중하는 그를 두고 학교동무들은 놀라운 정열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화목하고 정성이 넘치는 인간사랑의 화원속에서 그는 학업에 더 높은 열정을 쏟아부었고 졸업후에는 실력있는 의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꿈을 꽃피운 최성혁의사, 그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미덕의 화원에 피어난 한말기의 아름다운 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최성혁(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의 가정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키종함꼐 (21) ◎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용어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뇌비서대회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하시던 말씀.

몇해전 뜻깊은 신년사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체의 인민관, 인민제일의 최고정화로 내세우시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역사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건국과 첫시기 토지개혁병역의 발표와 내평평등권병역의 채택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 세계제도의 완전한 폐지, 전반전11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를 거쳐 오늘날 전민적12년제의무교육제 실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인민적법령이고 시책이다.

공화국에서는 정치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로선과 정책을 세우도 인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이런 정치하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

는 사회인 공화국에서는 물질적부의 창조자도 인민이며 그 향유자 또한 인민대중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의 인민들이 헤어나올길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허덕이고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현재의 삶에 대한 비애와 타락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격정과 불안의 그늘속에 묻혀 살고있다.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 찾아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 피난을 가는것도 21세기의 현실이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인민의 복락을 가꾸어가는 령도자가 계시어 흐르는 날과 밤, 해가 그대로 인민의 기쁨, 행복의 노래가 되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 다 찾아가신다. 공장과 농촌, 어촌, 과학연구기관 건설장, 학교와 유치원, 육아원과 예육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마른날 곳은날,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는 현직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연단에서 하신 그의 연설은 세인이 놀라움속에 평한바와 같이 《인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나는 인민을 위한 연설》이었다. 한 언뜻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두고 《25분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의 돌풍속에서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었고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곡에서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힘을 얻곤 하였다고 하신 인민사랑의 고백에 만인이 감동하였다.

인민이 바라만 하려는 별이 아니라 따와야 하며 인민을 위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키고 보살피며 꽃피워주고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은인처럼 고마운분이 없었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운명이고 미래의 기쁨으로 모시고 산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인민은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사회,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 공화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령도를 수호할수 있는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

는 사회인 공화국에서는 물질적부의 창조자도 인민이며 그 향유자 또한 인민대중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의 인민들이 헤어나올길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허덕이고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현재의 삶에 대한 비애와 타락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격정과 불안의 그늘속에 묻혀 살고있다.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 찾아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 피난을 가는것도 21세기의 현실이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인민의 복락을 가꾸어가는 령도자가 계시어 흐르는 날과 밤, 해가 그대로 인민의 기쁨, 행복의 노래가 되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 다 찾아가신다. 공장과 농촌, 어촌, 과학연구기관 건설장, 학교와 유치원, 육아원과 예육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마른날 곳은날,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는 현직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연단에서 하신 그의 연설은 세인이 놀라움속에 평한바와 같이 《인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나는 인민을 위한 연설》이었다. 한 언뜻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두고 《25분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김금화